

이름	교과세특	바이트
강주은	<p>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 따라 원격수업이 생활화되면서 직접 느낀 불편한 점과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생각해보고자 학급 자율활동시간에 실시한 사설NIE(2020.09.09.-2020.12.09.)에서 '원격수업'을 주제로 다양한 기사들을 스크랩하고 이를 편집하여 교육신문을 제작함. 원격수업의 방법과 관련된 기사부터 비대면으로 인한 활동수업 부재와 이에 따른 학습 손실 등에 대한 기사가 시사하는 바 및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공유함. 논리적 사고를 행동으로 옮겼을 때 사고력증진이 발생하는데 활동 수업이 부재함에 따라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인터넷 사용이 제한되지 않다보니 학습 손실이 발생함을 알게되고, 예비 교사로서 해결방안을 강구해봄. 또한 학습 관련 문제이외에도 온라인 대면을 통해 교사에게 험한 말을 하는 등 교육과 인권에 대한 윤리적 문제도 함께 생각해 보는 계기로 작용함.</p> <p>배움과 나눔에 있어 적극적인 학생으로 멘토 및 멘티를 자청하여 활동함. 과학, 정보 등 멘토로 활동하면서 개념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 실생활 예시를 들어 이해를 도왔으며,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멘토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모습을 통해 예비 교사로서의 자질을 확인할 수 있음.</p>	1444
공예진	<p>학급 자율활동시간에 실시한 사설NIE(2020.09.09.-2020.12.09.)에서 기사들을 수집하고 이를 편집하여 경영·경제 신문을 제작함. 벤다이아그램의 형태로 제작된 신문은 경영과 경제의 관계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영 및 경제의 차이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소득주도성장, 무역전쟁, 비트코인 등의 경제 관련 기사와 창조경영, 노동 정책, 복지 관련된 경영 기사로 구성된 신문은 각 기사가 시사하는 바 및 자신의 생각으로 구성되어 해당 분야에서의 견문을 넓힌 것 뿐만 아니라 학급 친구들에게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 계기로 작용함. 특히 소득주도정책에 대해 소득을 늘리고 생계비 부담을 줄여 경제 선순환의 동력으로 삼는다는 이상향이 있지만 세금 인상, 실업자 증가 등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도출한 것을 보고 급진적인 정책의 유연성 한계에 대해 고민해 보고, 현재 실시되는 정책들에 대해 스스로의 기준에 평가를 해 보는 점이 돋보임.</p> <p>통합사회 교과 멘토로서 '시장 경제를 위한 참여자의 역할'에 대해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위해 기업가, 소비자의 역할을 맡아 실현하였으며, '사회적 책임 피라미드'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단계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에서 경제 관련하여 박학다식한 학생임을 알 수 있음.</p>	1497
김나은	<p>학급 자율활동시간에 실시한 사설NIE(2020.09.09.-2020.12.09.)에서 '식품공학'을 주제로 다양한 기사들을 스크랩하여 편집하고 이를 활용해 식품신문을 제작함. 평소 식품공학에 관심이 많고, 매일 먹는 음식에 다양한 공학이 들어있음을 알리기 위해 해당 주제를 선택함. 콩, 옥수수, 쌀 등 식재료에 관한 기사부터 HACCP 도입 등 식품공학의 전 영역에 걸쳐 단순한 기사소개 뿐만 아니라 기사가 시사하는 바 및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학급 친구들에게 공유함. 특히 'GMO표시 의무화'에 대하여 GMO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식자재에 대해서도 유전자변형농산물임을 반드시 표기해야함을 주장함.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GMO식품은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소비자의 눈을 속이지 않아야 함은 분명하지만 무조건적인 비판보다는 음식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만족시키고,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식품재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을 알림.</p> <p>평소 국어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 고민을 하다가 멘티를 자청함. 받침소리, 어미 등 어려워하는 부분에 있어서 멘토 및 선생님에게 질문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함. 이후 다양한 예제를 풀어가며 확실하게 개념을 습득하는 모습을 보임.</p>	1445
김민지	<p>학교폭력예방교육(2020.04.22., 2020.05.06., 2020.09.09., 2020.11.04.)에 적극 참여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깨닫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 앞장섬.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되는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소외되는 학급 친구가 없도록 마니또, 단합대회 등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p> <p>장애이해교육(2020.04.22., 2020.12.26.)을 통해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개선이 아직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통합학급의 일원으로서 분위기 개선에 앞장섬. 장애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때에도 학습지, 전달사항을 메모해 두는 등 숭선수범한 모습을 자주 관찰할 수 있었으며 배려깊은 학생임을 알 수 있음.</p> <p>감염병예방교육(2020.04.29.)을 통해 감염병의 위험성, 대처방안 등을 학습함. 이후 감염병예방수칙을 만들어 학급 친구들에게 공유함으로써 감염병을 예방하는 분위기를 주도했으며 문고리, 게시판 등 학급 친구들이 상시 사용하는 곳을 철저히 소독하는 모습을 보임.</p>	1196

김서윤	<p>디베이트 캠프(2020.12.28.-2020.12.29.)에서 유전자 조작 맞춤 아기를 허용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찬성 측 주장에 과학 기술의 발전이 인류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왔음을 설명하며 맞춤 아기의 필요성을 강조함. 과학의 발전이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강조하면서도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음. 과학과 생명 윤리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력을 보여주며, 특히 상대의 즉흥적인 질문에 탁월한 순발력을 보여줌.</p> <p>1학기 학급 부반장(2020.03.01.-2020.08.27.)으로 선출되어 술선수범한 모습을 보임. 학급 청소시간에 자신의 청소구역 이외에도 어려운 구역을 맡은 친구들의 청소를 항상 도왔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 기간 수행평가 일정 등 학사일정을 확인하지 못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을 정리하여 사전에 공지하는 등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임.</p> <p>제19대 학생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2020.08.11.-2020.08.12.)으로서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를 실현하고, 준법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생 유권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깨끗한 선거를 통해 학생 유권자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건전한 민주정치발전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큰 역할을 수행함.</p>	#REF!
김서현	<p>디베이트 캠프(2020.12.28.-2020.12.29.)에 자원하여 '애완동물 보유세 도입'의 논제에 대해 징세 기준의 모호함, 법안 도입에 따른 막대한 인력 구축 예산수반, 경제적 책임에 따른 유기견 증가를 근거로 반대측 입장의 입안을 대변함. 특히 반려동물의 권리 보호라는 교차질의에 대해서 모든 생명은 동등한 가치를 지녀야 하는데 애완동물에게만 높은 가치를 부여해서는 안됨을 답변으로 제시해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남김.</p> <p>학급 자율활동시간에 실시한 사설NIE(2020.09.09.-2020.12.09.)에서 '아동학대'를 주제로 신문 기사를 스크랩하고 편집하여 교육신문을 제작함. 평소 교육에 관심이 많았으며 최근 아동학대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것에 실태를 알아보고, 심각성 및 예방법을 공유하기 위해 해당 주제를 선택함. 가정에서 벌어지는 학대 이외에도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건도 비슷함을 알게 되었고, 이에 예비 초등교사로서 SNS캠페인, 청원 등 가정과 학교에서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을 생각해볼게 되는 계기로 작용함. 특히 교직원 신고 의무제를 접하고 교사에게 주어지는 책임감을 느꼈으며, 무엇보다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따뜻한 분위기 형성 및 적극적으로 래포를 형성해야겠다고 마음다짐을 함.</p>	1499
김승민	<p>감염병예방교육(2020.04.29.)을 통해 감염병의 위험성, 대처방안 등을 학습함. 이후 감염병예방수칙을 만들어 학급 친구들에게 공유함으로써 감염병을 예방하는 분위기를 주도했으며 게시판 등 학급 친구들이 상시 사용하는 곳을 철저히 소독하는 모습을 보임.</p> <p>평화통일교육(2020.05.20.)을 통해 남·북 관계의 역사적 사실 및 이해관계에 대하여 학습함. 이후 추가조사를 통해 '남·북 통일의 현재'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함. 남·북 관계에 관한 정책, 개선방안 등을 상세히 포함하여 학급 친구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음.</p> <p>의료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으로 이를 구체화하고자 학급 자율활동시간에 실시한 사설NIE(2020.09.09.-2020.12.09.)에서 '의학'을 주제로 다양한 기사들을 스크랩하고 이를 편집하여 의료신문을 제작함. 의로서비스, 의료비부담, 의학발전방향 등 다양한 분야를 소주제로 선정하여 제작한 것이 돋보이며 특히 인공지능과 의학 부분에서 기사가 시사하는 바 및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점이 인상적임. 인공지능기술이 의학기술을 대체할 수는 있으나, 의사의 역할은 단지 기술적인 측면 뿐 아니라 환자와의 소통 즉 정의적 부분도 포함하고 있기에 이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공유함.</p>	1494
김에스더	<p>학급 자율활동시간에 실시한 사설NIE(2020.09.09.-2020.12.09.)에서 '과학과 윤리'를 주제로 기사들을 수집하고 편집하여 생명과학윤리신문을 제작함. 평소 신약개발분야에 관심이 많았고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백신개발이 화두가 되고 있지만 기술적인 측면만 집중받고 있다는 생각에 윤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해보고자 해당 주제를 선택함. 새로운 질병 등장에 따른 임상실험 사례 및 생명윤리법에 관한 기사들에 대하여 기사가 시사하는 바 및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공유함. 자연치유가 되지 않는다면 의료활동에 있어 결국 약물치료가 핵심이 될 수 밖에 없는데 불치병, 난치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검증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임상실험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함. 그러나 역사적인 사례로 보았을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실험이 많았으며 윤리적 정당성이 과연 필요성만으로 확보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함.</p> <p>통합과학 교과 멘토로서 꾸준히 활동함. 과학 관련 개념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고정멘토로 지정하는 것을 미루어보아 해당 분야에 대해 박학다식함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세포막, DNA 등 생명과학 및 화학분야에서 그림을 통해 멘티들의 이해를 돕는 모습을 자주 관찰할 수 있음.</p>	1501

나해찬	<p>2학기 학급 부반장(2020.08.28.-2021.02.28.)으로 선출되어 책임감을 가지고 학급 친구들의 의견을 모아 지각하지 않기, 이동수업 간 늦지 않기 등의 학급 규칙을 제정함. 특히 코로나19상황에 적합한 원격수업기간 온라인 조회 지각하지 않기 등 상황에 맞는 학급 규칙을 설정함. 이후 학급 친구들 스스로 만든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앞장서서 선행된 모습을 보여 학급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솔선수범함.</p> <p>영상제작에 관심이 많은 학생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을 직접 제작하고 이를 학급 친구들에게 공유하는 모습이 자주 관찰됨. 영상제작과 관련한 기술, 영상공유가 활성화 된 배경 등을 알고싶다는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 자율활동시간에 실시한 사설NIE(2020.09.09.-2020.12.09.)에서 '영상의 시대'라는 주제로 기사들을 스크랩하여 영상신문을 제작함.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영상을 업로드하는 플랫폼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이에 영상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이 나오게 됨을 알게됨. 영상을 이용해 자신이 알고 있는 유익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유익한 점이 있는 반면 가짜뉴스를 제작하여 오개념을 형성하고 편향된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게 하는 해로운 점이 있음을 알고 관련 정책이 필요함을 깨닫게 됨.</p>	1483
박성연	<p>2학기 학급반장(2020.08.28.-2021.02.28.)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해 개인 위생수칙 준수가 중요한 상황에서 이동수업 간 학급 학생들의 손소독 및 교실 방역을 상시 확인하여 감염병상황에서 누구보다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임. 또한 학급 규칙을 정하는 회의에서 원격수업 기간에 적합한 학급규칙을 제정하여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병행되는 상황에서 상황에 맞는 분석 및 판단능력을 보임.</p> <p>학급 자율활동시간에 실시한 사설NIE(2020.09.09.-2020.12.09.)에서 '경찰'을 주제로 기사들을 스크랩하고 이를 편집하여 경찰신문을 제작함. 타인을 도울 때 행복감을 느낀 스스로를 발견하고, 이와 관련한 진로를 생각하다가 체육활동에도 능숙한 특성과 연관지어 경찰을 떠올리고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해당 주제를 선택함. 경찰이 탄생하게 된 배경 관련 기사부터 경찰의 업무 및 인권 관련 기사까지 다양한 소주제로 분류하여 기사가 시사하는 바 및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공유함. 약육강식이 아닌 문명 세계를 만들기 위해 경찰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으며 특히 전과자에 대한 일상생활 정보 수집에 대하여 인권침해라는 입장에서 반대했으나 대다수의 행복이라는 기준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생각의 전환 계기로 작용함.</p>	1480
박지은	<p>4차 산업혁명에서 흐름을 주도하는 건 데이터의 흐름을 읽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 여기고 관심이 많은 학생임. 이에 학급 친구들에게 데이터의 가치를 알리고자 자율활동시간에 실시한 사설NIE(2020.09.09.-2020.12.09.)에서 '빅 데이터의 가치'를 주제로 다양한 기사들을 스크랩하여 정보신문을 제작함. 기온, 강수량에 사용되는 데이터에서부터 의료, 복지 등 분야별로 활용되는 데이터의 사례를 찾고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활용가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함. 특히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빅 데이터에 근간하여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는 시스템이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데이터 수집 단계에 주목하여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짐. 이는 빅 데이터를 이용해 각 사회계층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계기로 작용함.</p> <p>정보교과 멘토로서 정보를 어려워하는 학급 친구들에게 자신만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모습을 자주 관찰할 수 있음. 특히 2진수 및 8진수, 16진수의 변환 관계에 대하여 손가락을 이용한 2진수 변환법을 예시로 들어 이해를 돕는 모습에서 정보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p>	1499
신동환	<p>학급자율활동시간에 실시한 사설NIE(2020.09.09.-2020.12.09.)에서 'Contactless IT'를 주제로 다양한 기사들을 스크랩하고 이를 편집하여 IT신문을 제작함. 평소 IT분야에 관심이 많았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 등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화상수업 등이 화두가 되자 향후 비대면 IT기술이 발전할 것이라는 생각에 해당 주제를 선택함. IT기술의 연혁을 기준으로 핵심이 되는 기술이 생겨나고 그로 인한 영향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IT기술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된 계기로 작용함. 화상전화 등 비대면 관련 기술은 이전부터 존재했음을 알게되었으며 각광받지 못한채 기술의 발전이 더디지다가 코로나19 이후에서야 재조명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됨. IT기술의 발전은 사람들의 만남 및 이동을 최소화하여 감염병 사태를 막아주지만 유대감 형성 부족, 사회적 거리감 증가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키기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IT기술을 개발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힘.</p> <p>정보교과 멘토로서 활동함. 학급 친구들이 디지털 표현의 진법 변환을 어려워하자 직접 손가락을 이용해 예시를 들어 컴퓨터에서의 수의 원리 이해를 돕는 모습에서 컴퓨팅사고력이 우수한 학생임을 알 수 있음.</p>	1407

심은서	<p>학급 친구들과의 대화 중에 수학이 사칙연산 말고는 쓸모가 없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개념들을 배우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듣고 생각을 전환해줘야겠다고 마음먹음. 이에 학급 자율활동시간에 실시한 사설 NIE(2020.09.09.-2020.12.09.)에서 '우리 주변의 수학'을 주제로 다양한 기사들을 스크랩함. 이를 음식, 질병, 과학의 소주제로 분류하였으며 각각의 소주제에 맞추어 수학이 포함된 실생활 예시를 찾아 수학신문을 제작함. 특히 음식 부분에서 피자를 예시로 들어 삼각꼴 부분에 토핑이 많아 흘러내리려고 할 때 취하는 행동을 묻고 학급 친구들이 직접 대답하도록 유도함. 흘러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 피자조각을 접는 무의식적 행동 안에 담긴 쌍곡기하학의 원리를 설명하여 수학에 대한 생각을 전환하게 해주는 계기를 마련함. 이후 예비 수학교사로서 수학 원리를 가르칠 때 단순히 개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우리 주변과 연관지어 설명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다양한 예시를 기록해야겠다고 다짐함.</p> <p>수학 멘토로서 활동함. 어려워하는 개념을 쉬운 예시를 들어 설명하여 이해를 도왔으며 많은 친구들이 멘토로서 찾음. 또한 실제 멘티들의 수학교과 성적이 많이 향상되어 수학교사로서의 모습을 기대하게 하는 학생임.</p>	1490
양유빈	<p>매일 먹는 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식품을 개발하여 사람들에게 맛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는 포부를 가진 학생임. 이에 학급 친구들에게 음식 속에 들어간 다양한 화학 및 생명과학에 대해 알리고자 자율활동시간에 실시한 사설NIE(2020.09.09.-2020.12.09.)에서 '우리 주변의 음식 속 식품공학'을 주제로 기사들을 수집하고 편집하여 식품공학 신문을 제작함. 쌀, 고기 등 일반적으로 많이 접하는 음식에 대한 기사에서부터 식품 및 그 성분의 섭취에 따른 인체 변화까지 다양한 기사들을 분류하고 정리함. 특히 유전자변형 생물체인 GMO식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재한 점이 인상적임. 생산성 및 상품의 질 향상이라는 장점 대신 유전자 변형으로 인한 인체 유해 가능성과 품종 획일화에서 비롯되는 다양성 훼손이라는 위험성을 주장함. 또한 유전자 변형 식품이더라도 단백질의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GMO 표기가 미기재 된다는 점을 알게 되어 식품과 관련한 법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로 작용함.</p> <p>평소 과학교과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모습을 자주 관찰할 수 있으며 이에 통합과학 멘토로서 활동함. 산화환원 반응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 그림 및 반응식을 이용해 설명해주어 이해를 돕는 모습이 인상적임.</p>	1499
윤건우		0
이규선	<p>학교폭력예방교육(2020.04.22., 2020.05.06., 2020.09.09., 2020.11.04.)에 적극 참여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깨닫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 앞장섬.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되는 여수선한 분위기에서 소외되는 학급 친구가 없도록 마니또, 단합대회 등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p> <p>장애이해교육(2020.04.22., 2020.12.26.)을 통해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개선이 아직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통합학급의 일원으로서 분위기 개선에 앞장섬. 장애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때에도 학습지, 전달사항을 메모해 두는 등 솔선수범한 모습을 자주 관찰할 수 있었으며 배려깊은 학생임을 알 수 있음.</p> <p>감염병예방교육(2020.04.29.)을 통해 감염병의 위험성, 대처방안 등을 학습함. 이후 감염병예방수칙을 만들어 학급 친구들에게 공유함으로써 감염병을 예방하는 분위기를 주도했으며 문고리, 게시판 등 학급 친구들이 상시 사용하는 곳을 철저히 소독하는 모습을 보임.</p>	1196
이서연	<p>자율활동 시간에 실시한 평화통일교육(2020.05.20.)에서 높은 집중력을 보이며 남·북 문제의 배경과 의미, 역사적 사실 등에 대해 학습함. 이후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사설NIE 활동(2020.09.09.-2020.12.09.)에서 다양한 기사들을 스크랩하고 이를 편집하여 '통일신문'을 제작함. 통일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으나 기사들을 스크랩하고 학습해가는 과정에서 통일이 되었을 때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해 알게 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섞여있음을 알게됨. 통일에 대한 영향력을 정치적, 사회적으로 분류하여 기사가 시사하는 바 및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였으며 특히 각국의 이해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점이 돋보였음. 이산가족 문제를 생각한다면 마땅히 해결되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서로 다른 나라가 되어가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꼈으며 제작한 신문을 공유하여 학급 친구들이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함.</p> <p>체육교과 멘토로서 활동함. 동작의 원리를 알려주며 설명하는 것으로 학급 친구들로부터 인기가 있었으며, 특히 배구와 관련하여 모든 학급 친구들이 배구 리시브를 정확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여함.</p>	1496
이서영	<p>평소 미술활동에 관심이 많고, 자신의 생각이 들어간 미술 창작품을 만들어 학급 친구들에게 설명해주는 모습이 자주 관찰됨. 이에 학급 자율활동 시간에 실시한 사설NIE(2020.09.09.-2020.12.09.)에서 '저작권'을 주제로 한 기사들을 선택하고 스크랩하여 저작권 신문을 제작함.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이 활성화되면서 저작권이 대두되고 있으며, 창작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서 관련 주제에 대해 확실히 인지하고 있어야겠다고 마음 먹은 것이 계기가 됨. 교과시간에 학습한 저작권의 개념 이외에도 복제권, 공연권, 공표 등 심화 개념을 접하였으며 실생활에서 저작권으로 문제가 된 다양한 사례들을 인지함. 특히 미술 작품과 관련한 '추급권'에 대해서 모든 미술 작품이 현물화가 되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물화 된 미술작품에 대해서는 원저작자가 가치에 대한 보상을 확실히 받아야 의미가 있기에 추급권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밝힘.</p>	1134

이송이	<p>평소 역사의식이 투철한 학생으로 한국사에 관심이 많으며 국가를 위해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임. 또한 역사의식을 학급 친구들에게 고취시키고자 자율활동시간에 실시한 사설NIE(2020.09.09.-2020.12.09.)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역사'를 주제로 다양한 신문기사들을 스크랩하고 이를 활용하여 역사신문을 제작함. 한국의 방위벽 부담금, 한반도 정세, 민주화 운동 등 근현대사부터 현대까지 시기별로 기사들을 수집하고 기사가 시사하는 바 및 자신의 생각을 정리함. 특히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교과시간에 학습한 사건 발달 이외에도 군인들의 성폭력, 11세 아이의 헛죽음 등 감추어진 사건들이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됨. 나아가 5.18 역사왜곡처벌법에 대해 취지와는 다르게 허위사실이라는 단어가 주는 애매모호함으로 인해 다양한 해석이 있음을 알게되고, 학급 친구들과 함께 찬성과 반대의 각 입장에서 의견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짐.</p> <p>한국사교과 멘토로서 활동함. 역사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 연표를 직접 그려주고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문제를 직접 제출해주는 모습에서 역사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p>	1394
이예원	<p>학급 자율활동시간에 실시한 사설NIE(2020.09.09.-2020.12.09.)에서 '보건'을 주제로 기사들을 스크랩하여 편집하고 이를 활용해 보건신문을 제작함. 평소 보건분야에 관심이 많았으며 해당 분야와 관련한 사회적 문제들을 탐구해보고 싶다는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고자 해당 주제를 선택함. 간호학 관련 기사부터 건강 및 죽음에 관련한 기사까지 다양한 기사들을 수집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해당 분야에서 견문을 넓히게 된 계기로 작용함. 특히 '연맹의료결정법(웰다잉법)'을 접하고 난 뒤 찬성과 반대 각각의 입장 및 실제 사례들을 찾아가며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짐. 찬성 및 반대 한 쪽의 입장만을 지지하기는 어렵지만 예비 간호사로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환자들을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성찰해보는 계기가 됨.</p> <p>과학교과에 관심은 많지만 어려워하는 평소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통합과학 멘티를 자청함. 생명과학 분야에 대해 자주 질문하고 특히 세포막의 물질교환 원리에 대해 멘토의 설명을 들으며 이해하는 모습을 보임. 이후 해당 개념에 대한 본인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심화이해를 하는 모습을 통해 성장에 끊임없이 노력하는 학생임을 알 수 있음.</p>	1481
이유나	<p>평소 행정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으로 뉴스나 신문 기사를 읽고 알게 된 정책들에 대해서 학급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자주 관찰됨. 이에 견문을 넓히고자 학급 자율시간에 실시한 사설NIE(2020.09.09.-2020.12.09.)에서 '행정'을 주제로 한 기사들을 읽고 편집하여 행정분야 신문을 제작함. 교육, 경제, 사회분야로 나누어 신문을 제작하였으며 각 기사가 시사하는 바 및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고 공유함. 정책은 문제해결과 공정성을 토대로 세워야 한다는 시각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시각으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추진된 사회적 거리두기, 재난지원금 등의 정책을 분석함. 짧은 기간에 결정된 만큼 사회적인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였는지, 효율성 및 피해에 대해 조사하고 특히 최대 피해자라고 여겨지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다양한 보상방법을 연구하는 모습은 미래 행정분야 종사자로써의 모습을 기대하게 됨.</p> <p>전반적인 사회 구조 및 현상에 흥미가 있으며 이에 통합사회 교과 멘토로서 활동함. 인권과 헌법의 관계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 각 국의 헌법을 예로 들어 이해를 도왔으며 나아가 삼권분립과 인권의 관계를 설명하고 이를 정부체제와 연관지어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임.</p>	1464
이은서	<p>제과제빵에 관심이 많은 학생으로 자신이 만든 빵을 가져와 학급 친구들에게 나누어주는 모습을 자주 관찰할 수 있음. 학급 자율활동시간에 실시한 사설NIE(2020.09.09.-2020.12.09.)에서 '제과제빵 봉사'를 주제로 한 기사들을 읽고 편집하여 제과제빵 나눔 신문을 제작함. 제과제빵에 관련하여 학급 친구들에게 공유할 만한 기사들을 찾다가 우연한 발견을 계기로 해당 주제를 선정하게 됨. 제과제빵 체험교실, 만들어진 빵 나눔 등 재능기부가 이루어지는 형태를 정리하여 신문을 제작하였으며 봉사에 사용된 다양한 제빵 기술에 대해서도 소개하여 학급 친구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함. 또한 미래 제빵사로서 단순히 빵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나눔 및 재능기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으며, 어떠한 형태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성을 고민해보게 된 계기로 작용함.</p> <p>모르는 것을 알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학생으로 평소 취약하다고 생각했던 국어 및 수학 교과와 관련하여 멘티를 자청해 도움을 받음. 수업시간에 들었지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을 따로 정리해 두었다가 선생님, 멘토 등을 활용해 확실하게 습득하는 모습을 자주 관찰할 수 있음.</p>	1429
이지원	<p>경영에 관심이 많은 학생으로 평소 학급 친구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경영마인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자주 관찰할 수 있음. 이에 자율활동시간에 실시한 사설NIE(2020.09.09.-2020.12.09.)에서 '행복경영'을 주제로 다양한 기사들을 스크랩하여 편집하고 경영신문을 제작함. '구성원의 행복이 곧 성취'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으며 평소 지니고 있던 생각과 일치하는 기사를 접하고 해당 주제를 선택함. 행복경영의 개념이 탄생하게 된 배경 및 방법 등을 파악하였으며 단기적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마주하고, 미래 경영인으로서 영어콜네임, 먹거리 제공 등 단순한 복지차원 이외에 장기적 시각에서의 해결방안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짐.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가져온 기업의 막대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특별경영자금을 상세히 알아보고 행복경영의 관점과 연결지어 다양한 정책 등을 구상함.</p> <p>평소 일을 행함에 있어 계획적인 학생으로 수학멘토를 활동하면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돕는 모습을 보임. 개념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 예시를 들어 설명해주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직접 문제를 출제하여 이해를 돕는 모습을 자주 관찰할 수 있음.</p>	1486

임지민	<p>장애이해교육(2020.04.22., 2020.12.26.)을 통해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개선이 아직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통합학급의 일원으로서 분위기 개선에 앞장섬. 장애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때에도 학습지, 전달사항을 메모해 두는 등 솔선수범한 모습을 자주 관찰할 수 있었으며 배려깊은 학생임을 알 수 있음.</p> <p>감염병예방교육(2020.04.29.)을 통해 감염병의 위험성, 대처방안 등을 학습함. 이후 감염병예방수칙을 만들어 학급 친구들에게 공유함으로써 감염병을 예방하는 분위기를 주도했으며 문고리, 게시판 등 학급 친구들이 상시 사용하는 곳을 철저히 소독하는 모습을 보임.</p> <p>평화통일교육(2020.05.20.)을 통해 남·북 관계의 역사적 사실 및 이해관계에 대하여 학습함. 교과시간에 학습한 6.25전쟁 이외에도 다양한 사건이 있었음을 알게 되고 이후 추가조사를 통해 '남·북 통일의 현재'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함. 남·북 관계에 관한 정책, 개선방안 등을 상세히 포함하여 학급 친구들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음.</p>	1215
조서준	<p>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생으로 특히 자신있어하는 과목인 수학과 연계지어 수학교육에 흥미가 많은 학생임. 학급 자율활동시간에 실시한 사설NIE(2020.09.09.-2020.12.09.)에서 '수학교육'을 주제로 다양한 기사들을 스크랩하고 편집하여 수학신문을 제작함. 수학교육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 수학교육의 현실, 나아가야 할 방향을 소주제로 삼고 기사가 시사하는 바 및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공유함. 학교 정규교육과정 안에서 수학이 중요시되고 많은 시간을 교육받지만 해야 되는 이유는 알지 못한채 단순히 공식만을 암기하는 현실을 탈피하기 위해 예비 수학교사로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봄. 이에 우리 주변에서 수학이 사용되는 원리인 실생활 예시를 많이 기록해두어야겠다고 다짐함.</p> <p>학교폭력예방교육(2020.0.0., 2020.0.)에 적극 참여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깨닫고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혹은 당한 친구를 보았을 때, 교사 및 학생이 할 수 있는 대처방법에 대해 학급 친구들과 함께 토론함.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알고 있으며 WEE클래스, 학교폭력전담 기구 등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을 정리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앞장섬.</p>	1466
최민혁	<p>학교폭력예방교육(2020.04.22., 2020.05.06., 2020.09.09., 2020.11.04.)에 적극 참여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깨닫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 에 앞장섬.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되는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소외되는 학급 친구가 없도록 마니또, 단합대회 등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p> <p>감염병예방교육(2020.04.29.)을 통해 감염병의 위험성, 대처방안 등을 학습함. 이후 감염병예방수칙을 만들어 학급 친구들에게 공유함으로써 감염병을 예방하는 분위기를 주도했으며 문고리, 게시판 등 학급 친구들이 상시 사용하는 곳을 철저히 소독하는 모습을 보임.</p> <p>평화통일교육(2020.05.20.)을 통해 남·북 관계의 역사적 사실 및 이해관계에 대하여 학습함. 교과시간에 학습한 6.25전쟁 이외에도 다양한 사건이 있었음을 알게 되고 이후 추가조사를 통해 '남·북 통일의 현재'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함. 남·북 관계에 관한 정책, 개선방안 등을 상세히 포함하여 학급 친구들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음.</p>	1246
최세은	<p>1학기 학급반장(2020.03.01.-2020.08.27.)으로 선출되어 책임감을 지니고 학급이 단합될 수 있도록 노력함. 코로나19 상황으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되며 발생할 수 있는 수행평가, 교과과제 등 복잡한 일정을 항상 사전에 공지하여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학사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함. 또한 마스크 상시 착용으로 학기 초 어색한 분위기가 오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랜선 아이스브레이킹, 마니또 등의 학급 행사를 주최하였으며 모두가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모습을 통해 리더로서의 자질을 보임.</p> <p>평소 생명 분야에 관심이 많아 유전자조작 아기에 관한 뉴스를 시청하고 동일한 관심사를 지닌 친구와 의견을 주고받다가 이에 대한 지적호기심 해결을 위해 '유전자 조작 아기를 허용해야 한다'는 논제로 토론을 진행함. 찬성 측 입장으로 '인류의 생존성 증대'를 근거로 하여 코로나19처럼 새로운 감염병 및 질병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과학 기술을 이용해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인류사에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임을 주장함. 반면 과학의 진보를 인정하면서도 유전적 다양성의 훼손, 아기의 인간 존엄성 침해라는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모습을 통해 생명공학과 윤리의 관계를 깊이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p>	1499
최완규	<p>역사에 관심이 많은 학생으로 역사적 사건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하는 모습이 자주 관찰됨. 학급 자율활동시간에 실시한 사설NIE(2020.09.09.-2020.12.09.)에서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학급 친구들에게 알리고자 '광해군'을 주제로 다양한 기사들을 스크랩하여 역사신문을 제작함. 무수히 많은 역사인물들 중에서 가장 다양한 상황으로 해석되는 인물이라고 생각되기에 주제를 선택함. 폭군과 외교관이라는 두 측면에서 광해군을 접근한 것이 인상적이었으며 각각의 상황이 설명되어 있는 기사들을 선택하고 기사가 시사하는 바 및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함. 기록에 의존한 해석이지만 한 인물이 보여준 다양한 모습에 매료되었으며 이에 역사적 사실을 분석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게 되는 계기로 작용함.</p> <p>한국사교과 멘토 및 멘티로 활동함. 자신있어하던 현대사 부분에서는 역대 대통령 부분을 연도별로 자세히 설명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자신 없던 근대사 부분에서는 멘토의 설명을 들으며 그림으로 표현해 확실히 습득하는 점이 인상적임.</p>	1273
최은호	<p>정의를 인생의 가치관으로 여기는 학생으로 체육활동을 좋아하는 특성에 맞추어 진로를 생각하다가 경찰에 관심을 가지게 됨. 이에 학급 자율활동시간에 실시한 사설NIE(2020.09.09.-2020.12.09.)에서 경찰에 대해 깊이 이해해보고자 경찰관련 다양한 기사들을 스크랩하여 이를 편집해 경찰신문을 제작함. 교통경찰, 행정경찰 등 경찰의 분류에서부터 범죄자에 대한 인권문제까지 범영역에 걸쳐 다양한 기사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공유함. 특히 정의라는 기준에서 범죄자의 일상생활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찬성하지만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해보는 계기로 작용함.</p> <p>디베이트 캠프(2020.12.28.-2020.12.29.)에서 '애완동물 보유세를 도입해야 한다'의 논제에 대해 단순히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닌 책임감을 부여한다는 의견으로 입안을 발표함. 교차질의에서 반려동물물을 재산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에 현재 버려지는 유기견의 비율을 근거로 제시하며 적절한 반박을 제시하는 모습이 인상적임.</p>	1246

한혜원	<p>평소 국어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생으로 깊이를 더하고 싶다는 지적호기심을 해결하고자 학급 자율활동시간에 실시한 사설NIE(2020.09.09.-2020.12.09.)에서 '국어'를 주제로 다양한 기사들을 스크랩함. 이를 한글, 교육, 문법으로 세분화하여 각 분류에 맞추어 기사를 수집하고 기사가 시사하는 바 및 자신의 생각을 정리함.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한 인도와 관련해서는 한글의 장점을 깨닫고 자부심을 가지게 된 계기로 작용함. 또한 학교현장에서 비속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급증하는 시대에 SNS발달로 인한 비속어의 접근성 간편을 원인으로 추리고 예비 국어교사로서 해결방안을 고민함. 나아가 지문을 읽고 화자의 정서를 묻는 문제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위해 화자의 정서는 서술어에서 파악할 수 있는 반면 주어나 목적어 중심의 해석이 원인임을 밝히고, 직접 몇 가지의 기사들을 서술어 중심으로 분석하는 예시를 공유함.</p> <p>국어교과 멘토로서 활동함. '용비어천가'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 직접 용비어천가를 해석해가며 으른에 사용된 원순모음화, 곳의 표기법의 이해를 돕는 모습을 보임. 다른 작품에서 사용된 비슷한 문법을 예시로 들어 확실히 이해시키는 모습에서 예비 교사로서의 모습을 엿볼 수 있음.</p>	1493
한성규	<p>학교폭력예방교육(2020.11.04.)에 적극 참여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깨닫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 앞장섬.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등교 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되는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소외되는 학급 친구가 없도록 마니또, 단합대회 등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p>	398
		0
		0
		0